(나) 병렬결선인 경우

$$V = n \cdot I (r d/n + \ell_1 \cdot r \ell_1 + \ell_2 \cdot r \ell_2 + r i + r c) \cdots (6)$$

(다) 직·병렬결선인 경우

$$V = b \cdot I \left[(a \cdot rd + \ell_1 \cdot r\ell_1)/b + \ell_2 \cdot r\ell_2 + ri + rc \right] \quad \cdots \qquad (7)$$

여기서, I : 전류(A)

rd : 전기뇌관 1개의 저항 (Ω)

 $r\ell_1$: 보조모선 1미터당 저항(Ω)

 $r\ell_2$: 발파모선 1미터당 저항(Ω)

rc : 결선부의 접촉저항(Ω)(실제로는 극히 작은 수치이므로 생략하여도 지장

없다.)

ri : 발파기의 내부저항(Ω)(콘덴서식 발파기의 내부저항은 0Ω 해도 좋다)

n : 전기뇌관 수

a : 직렬결선 전기뇌관 수

b : 병렬결선 수

 ℓ_1 : 보조모선에 사용된 단선의 길이(m)

ℓ。: 발파모선에 사용된 단선의 길이(m)

5.2.5 저항불량

저항측정에서 소정의 저항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그대로 다음 작업에 들어가서는 안된다. 불량개소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정의 광전자식 도통시험기로 개개의 전기뇌관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
5.2.6 장전 및 점화

장전 및 점화작업은 5.1의 발파의 준비 및 5.2의 발파 규정에 따른다.

5.3 발파 후 처리

5.3.1 발파 후 처리

- (1) 발파 후 즉시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하여 단락시켜 두고 재 점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2)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하여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폭발여부의 확인이